

어려움에 처해도 최선 다하면 그 자리가 '극락'

갑오년, 오유지족의 해 되길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새해가 밝아옵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오유지족(吾唯知足)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즉, 스스로 오직 만족할 줄 아는 새해를 맞으십시오! 극락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유지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내어줍니다. 셋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마음으로 한해를 살아간다면, 험한 말과 같이, 우렁찬 말발굽 소리같이 환! 트인 갑오년이 될 것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바른 정치 이뤄지도록 해야

불교총지종 총무원장 법등 정사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生死苦)라는 인간고의 해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고에서의 해방의 길은 정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물질적 환경 즉 국가의 경제, 정치적인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군주와 백성을 인격적으로 교화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나의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하고 나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공존 · 공영 사회 만들자

(사)대한불교원용원(종) 종정 일공 스님



원통융화(圓通融和)한 인간사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국가 내지 전 세계에 이르기 까지 원통융화(圓通融和)되어야 합니다. 원통(圓通)은 조금도 간격이 없이 둥글게 통한다는 뜻입니다. 원통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도와주는 인도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둥글게 통하는 곳에 만복이 따릅니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친선하면 서로를 도와서 공존(共存), 공영(共榮)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입니다. 스스로가 예를 갖추어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이사회는 가장 평화롭고 밝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 버리면 싸울 일도 없구나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해안 스님



鳥飛兔走 誰能止 雪中木蓮 已春色
兩羊一橋 終日關身 在東持 依西風
狐貍虎皮 有甘言 是非勝敗 悉慾生
皆棄虛心 何事爭 一切作福 唯心造

오고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어 눈꽃 속에 목련은 어느덧 춘색이네. 외나무 다리위에 양두마리 다름은 해지는 줄 모르고 뜬 동에 양자 서쪽노래 부르네.

여유가 범가죽 둘러쓰고 도리어 여유의 울음을 짓고 시시 비비 이기고 지는 것들은 욕심에서 생겨나니.

다 버리면 편해지니 싸울 일도 없구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으로 만드는 일.

중생의 지팡이되는 불자 됩시다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正等覺無畏 漏永盡無畏
設障法無畏 設出道無畏

생동감이 가득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른손을 무릎 위로 올려드리고 왼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는 함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바라보십시오. 대지에 맹세하여 마왕을 조복한 부처님의 큰 깨침을 명기하신 인계(印契)입니다. 육계의 인간이 살아가는 지표입니다. 새해에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부처님을 닮아 중생들의 지팡이가 되고 살아있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됩시다.

해조음의 광명을 보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갑오년 새해아침 해조음을 타고 밀려오는 광명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보살의 자비행입니다. 묘법연화경의 대광명입니다.

거짓 나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눈을 뜨고 보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을 씻으십시오. 높이 오르십시오.

무명을 깨고 나오십시오. 묘법의 평등대해가 온 세상에 펼쳐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바른 지혜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우리 불자님들과 국민 모두가 함께 부처님이 되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참회구현이 부처님 광명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새해를 맞고 목은해를 보내고, 날과 날이 그냥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기준으로 새해니 목은해니 합니다. 매일 매일이 새 날이고 매일 매일이 목은 날인 것인데.

서로를 둘러보고 보듬어 함께 잘 살아봅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 짓는 불자가 됩시다. 향시 자기를 낮추고 온화한 미소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집과 이기심을 비우고 참회를 구현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나타내고 중생들은 비로소 행복과 안위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심행하면 만인 존경이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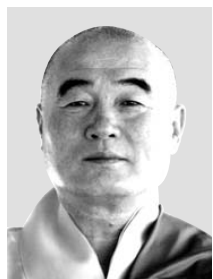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이웃 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탐욕도 성냄도 벗어 놓고 증오하지 말며, 안색은 화평하게 하고 아상을 버리고 하심 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만인의 존경을 받는다.

대해가 티끌을 품어도 말없이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한결같은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한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향시 부처님을 찬탄하고 정진해 갑시다.

국난 극복 해법이 불교

(사)전국사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국난극복의 저력과 중심축은 불교가 해법이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가정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나타나 행복 가득 하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불교가 세계 일류 종교로 힘차게 나아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불교인들이 오직 신심과 용맹정진으로 일체의 단합과 화합으로 숭선수범하여 정법안정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더 큰 한국불교 발전을 다함께 열어갑시다.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침묵 같은 무명과 함께 목은해가 사라지고 밝은 마음으로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탐욕과 무명의 허망한 꿈속에서 보게 되니 삼라만상이 한 법성체로 우리 주위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부처입니다.

아미타불의 사십팔 대 서원처럼 어둠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생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중생요익의 밝은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밝은 법등 명되어 남과 북 동과 서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면 덕이 돼

(사)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甲午年 大運智通
忍之爲德 不忍不戒
小事成大 忍爲之上

모든 것을 참으면 덕이 되며 참지 않고 경계치 않는다면 적은일이 더 크게 화가되니 참는 것이 상위가 되는지라 새해에는 참나를 찾아 대 자유인이 됩시다. 티끌 속에 살면서도 티끌을 벗어나는 참다운 무아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작은 등불이나마 지켜 갑시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니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해승 스님



겨울 앞에 서니 아름다움과 추함이 분명히 구분되고 명경이 손에 있으니 죽이고 살리기를 마음대로 하도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온다. 죽는 가운데 살아나니 삶 가운데 죽는다.

계사(癸巳)년은 가고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년지계는 재어원단(一年之計 在於元旦)이라. 어렵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던가? 어려움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천만 불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마음먹기 달렸으니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새해에는 삼기일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모두모두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실천하는 참모습 돌아가자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자정기의를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자.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진실한 것이다.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진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을 우리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알음알이로 차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개념 지어 그 개념에 사로잡혀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 승가와 불자들은 자정기의(自淨其意)를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한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세계승가회 회장 아신 수완나 스님



如鳥飛虛空 影則常相隨
通達無我法 卽真是涅槃

창공을 노니는 새 그 자취 찾기 어렵고 언제나 따르는 상은 그림자와 같음이네. 일체의 실상이 모두 없음을 통달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진여열반이 아니라 무릇 일체중생이 열반에 이르지 못함은, 집착이 근본이 되어 허망한 경계에 빠져있음이니, 이러한 이는 마침내 객진번뇌에 둘러싸여, 참다운 고요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망상을 일으키는 알음알이로부터 벗어날바랍니다.

팔정도를 행하는 한해되길

(재)대한불교일분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자기를 믿는 자는 남도 믿고(自信者人),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남도 또한 믿지 못하고(自信不者人), 마음이 밝으면 있는 곳이 극락이고(心明之樂), 마음이 어두우면 있는 곳이 지옥이다.(心暗之獄)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자기정찰(自己省察)과 함께 팔정도(八正道)를 행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길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분별심 벗어나면 극락세계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말해(午年)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어려웠던 목은해는 다 잊으시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는 모든 중생이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든 이들의 갈등과 대립, 경쟁심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깨달고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결국 그 끝은 암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이기적 분별심을 벗어나 나와 이웃과 함께 한다면 모두 극락세계일 것입니다.

모든 세계 나의 말따라 변해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갑오년 새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이 두루 하니 온 만물이 불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불성을 모아 내안의 청정함을 되찾고 사랑과 신뢰, 믿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치유하며 평화로운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세계가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 변합니다. 참나를 자각하여 공존공생의 삶이 되도록 바로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중생들의 미혹함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 뜻을 마음에 새깁시다.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갑오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중만 할 것을 기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갑오년 오시는 길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들만 가지고 오시옵소서.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부처님의 자비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르침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한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계가 불난 집에서 소꿉질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나를 버리고 자유로워질 때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좋은일, 나쁜일 내가 뿌린 씨앗

대한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스님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뿌린 씨앗.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림은 썩 나는 것을 믿기 때문.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생각하며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을 일 전혀 없네. 인연한 모든 자 새해에는 복덕이 함께 하시기를. 괴로움의 원인이 욕심이니 이 욕심의 덩어리를 없애는 길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 심없는 정진의 각오를 굳건히 해 좋은 인연 만드는 원력으로 삼아봅시다. 새날 새해 아침 모두의 건승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자비는 보살의 연꽃으로 변한다

(사)대한불교공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무심(無心)하다면 자비(慈悲)는 보살의 연꽃으로 변한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세상을 향해 힘찬 첫 걸음으로 밝아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가 부처져서 미군이가 되는것요, 참으로 무심하다면 악마의 지독한 화살은 자비스러운 보살의 부드러운 연꽃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자는 자리아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함께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이일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오직 하심 뿐인 것입니다.

이기적 분별심 벗어나 이웃과 불국정토 이루세

계율 청정, 대중 노랫소리 들려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니 새해 대중의 노랫소리 들린다. 계율이 청정하니 남과 북이 화합하고 새해대중의 행복의 노랫소리 들린다. 자비로운 여왕이 권좌에 오르니 세계가 우러러 태평성대다. 대중은 화합하고 같이 나누고 자비롭게 말하고 남을 존중하니 국가는 융창하고 부모형제 이웃의 웃음소리 세계에 넘쳐난다. 새해 동녘 해는 밝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남산의 소나무 힘 넘쳐나고 인왕산 산세들 한가롭게 뛰어논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우리 사회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함께 노력해 갑시다. 화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갑시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 보듯이

(사)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능히 일체 만법을 만들어 내거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고 합장 공경합니다. 새해 새날 우리 불자들이 나서서 정도와 정법으로 새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 섰시다. 부처님 정법 안에 그 답이 있음을 알고 모두가 함께 정진해 나가갑시다.

새해를 맞아 침묵은 정진의 각오로 좋은 인연을 만드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는 종교인 되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勿以貴己而賤人 勿以自大而蔑小 勿以恃勇而輕敵 心不負人 面無慙色

자신이 귀하다 하여 남을 천대하고 자신이 커다랗다 남을 작다 멸시하고 자신이 용감하다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마음속으로 남을 배신하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새 해를 맞이하는 불자들. 평상심을 찾아 행복한 삶을 회복합시다. 본래 청정의 마음을 찾아 걸림이 없는 자유로 상생의 길을 열어갑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복이 깃들고 이웃 간에 따스한 온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자비로 원융화합의 새해되길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無南北亦無東西 天地萬物 與我空 貪欲滅濟 慈悲行 圓融和合 一切化 護國安民 生樂氣

일찍이 남과 북이 없었으며 동서도 없으니 천지만물도 나와 함께 비었네.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써 행하면 중생들은 자연이 원융화합으로 일체를 이루리니.

그것이 호국이며 백성을 편케 하는 것이요, 온 법계가 찬란히 빛날 것이로다.

붉은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른다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평 스님



아무런 약속도 없었는데 저 동해구의 붉은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이 우주만상은 말없는 가운데 유전하고 항시 새로움을 줍니다.

刹眞信念加數知 大海中水加欣盡 虛空量風加繫 無能盡說佛功德

우주의 먼지같이 많은 생각들을 헤아려 알고 큰 바다의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못 헤아려보고 바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 다 설할 수 없네요.

오고감 없는 자리서 성불하세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謂心無爲淨修梵行 明達清潔是爲比丘

마음에 어떠한 집착도 없고 부지런히 청정한 행동 닦아내는 이치에 통달하면 이러한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목은 한해를 떨어 버리고 나니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가 밝았도다. 중생들은 언제나 부처의 종자니 오고감이 없이 모두가 앉아 성불하세.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불자들이 모두 발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양보와 화합의 사회 조성합시다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비로광명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한발씩 물러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모든 이가 하나로 뭉쳐 화합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비방·칭찬은 모두 명리 때문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잘 한 것도 비방하고 못 한 것도 비방하고 말과 소리도 비방하고 세간에서는 비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비방하고 칭찬하는 것은 모두 명리 때문이다.

명리 추구에서 벗어나 부처님 법에 따라 마음을 닦고 진정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불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진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에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번뇌는 좋은 공부재료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色耶。空耶。放下着。離忘覓心龜龜毛。

빛깔이나. 빙이나. 놓아라. 망념떠나 마음찾음 거북털을 구함이네. 우리들은 항상 이분법 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눕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법성의 자리에서는 항상 여여하며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좋은 공부재료입니다. 이러한 공부 재료를 벗어나 마음을 찾는 것이 아발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자리 찾아 자유인이 될 때까지 정진 합시다.

부처님 가르침 거울삼아 정진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갑오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의 가정과 모든 사부대중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면 다툼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웃음과 진정된 자유와 평등이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께서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불우 이웃을 위해 모두 정진합시다.

참으로 참회하여라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유심 스님



마음에 죄의 인연 없애려 하면 성품 가운데 참으로 참회하여라. 배운에 항상 자성관 하면 즉시 부처님과 한 무리되리. 앞으로 법상을 찾고자 하면 모든 법상을 떠나서 마음 씻으면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마라. 뒷생각 끊어 지면 한 세상 쉬리라. 이 계승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 하리라... 내 가족, 이웃, 사회, 국가와 민족 인류의 평화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 내실을 다져 각 개인마다 충실하여 인격을 완성합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스님



세월이 흘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 '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인 이렇듯 자연스러움을 넘쳐나면 삼독이 저절로 녹아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갑오년 새해 밝은 눈으로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시라.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자비행의 원력을 세우시라.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듯이 불자들이 올 해의 원력을 더 크게는 평생의 원력을 세우길 정진합시다.

하심으로 솔선수범자세 가져야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새해 새날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불자들이라면 마음을 담은 서원을 스스로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강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백년염불 남음이 없어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東海日光石窟漫 佛菩薩而微笑顏 颯風降雪佛非動 百年念佛餘無誦

동해의 일광이 석굴에 가득하니, 부처님과 보살의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태풍과 눈이 내려도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며, 백년염불을 외워도 남음이 없다. 탐진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상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을 놓아버리고 수행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불자답게 살아갑시다.

우리들의 본래마음이 평상심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갑오년의 새 아침을 알리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하대지는 기쁨으로 넘쳐나고 온갖 중생들은 희망에 부풀어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날의 힘들었던 고난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옛 선사가 '평상심이 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본래의 마음이 평상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상심을 찾아 행복한 삶을 회복합시다. 또한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찾아 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명지켜 세상의 빛 되자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14년 새해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는 새해 탄탄하지 않은 길을 가야합니다. 국내정치는 불안하고 경제여건 또한 여의어하지 않습니다. 주변여건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언론인들은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겠습니다. 언론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가 바로 비판정신입니다.

올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언론인들은 언론 본연의 비판정신을 결연히 지켜 국가사회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2014 마음 다이어리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풀 경전의 소중한

4 날자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 크기 : 가로 14.8cm × 세로 20cm
♥ 가격 : 1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계좌: 농협 053-이-269062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